

추석 특집 / 코로나19와 연일 사투 속 두번째 맞는 추석 명절

“코로나 종식되는 날, 영웅은 우리 모두”

항만119센터 고은희·양혁진 대원, 선별진료소 김슬기씨 “우리들의 자그마한 노력이 코로나 극복에 보탬되기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마스크는 필수템이 됐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들의 일상이 됐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구급대와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도 잠시 쉬를 뒤로하고 도민들을 위해 집을 나선다.

“당연히 쉬고 싶죠. 하지만 코로나가 연휴 기간 멈추진 않잖아요? 몸은 힘들더라도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소속 고은희(34·여) 소방교와 양혁진(31) 소방사는 2년째 코로나19 전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는다.

출동 신고가 들어오면 환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이동 동선을 짜고 레벨 D 보호복과 고글 등을 착용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전화로 이용수칙을 안내하고,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통상 제주의료원으로 이송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병동 수가 부족해 제3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제3치료센터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어 이송 시간이 3시간(110km 이상)이나 소요된다.

“고글을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져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보호복 내부는 환기가 안돼 더워 체력적으로 부담되죠. 복귀하면 차량 내·외부에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귀소 중 출동지령이 오면 곧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 이들의 부담은 배가 됐다. 읍암구급대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8월 100명이 넘는 확진자·의심환자를 이송했다.

선별진료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체 간호사 7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시간 단위로 교대근무를 진행하는데 2시간 검체 채취를 하고, 2시간은 내부에서 운영



출발 전 방호복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고은희 소방교와 양혁진 소방사(사진 왼쪽). 제주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자들이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업무를 맡는 식이다. 이러한 근무는 추석 연휴 때도 이어진다.

하지만 선제검사 시행으로 검사가 폭증하고 있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하루에 적게는 800명에서 많게는 2000여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김슬기(29·여)씨는 적잖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운영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오셔서 검사를 안해준다고 폭언을 퍼부

는 경우가 있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자그마한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보탬 수만 있다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무자 모두 추석 연휴를 맞아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보태달라고 입을 모았다.

“추석에도 방역수칙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즉각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를 받아주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영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7일 금요일 음 8월 11일 (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90%	제주	60%
90%	성산	60%
90%	고산	60%
90%	서귀포	60%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3/26°C
모레	맑음	22/27°C

흐리고 비

제주에는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C, 낮 최고기온은 25-27°C로 전망된다. 태풍에 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가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18	달뜨기 16:44
해질미 18:38	달지기 01:57
물때	간조 02:48
21:15	14:22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보통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거리두기 4단계에 실물경제 회복세 ‘주춤’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 “8월 관광객 100만 밑돌아”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적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물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7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전월(4.5%)에 비해 회복세가 둔화됐다.

8월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113만3000명)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

는 올 2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던 내국인 관광객 수가 방역강화 조치로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일평균 관광객 수는 거리두기 3단계 기간중(8월 1~17일) 3만 5881명에서 4단계(8월 18~31일)로 상향 조정된 후에는 2만6891명으로 25.1% 감소했다.

8월중 농산물 출하액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축산물 출하량도 사육두수가 줄며 2.0% 감소했다.

8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매매가격(전월대비 2.3% 상승)이 오른 영향으로 전월대비 1.0% 올라 전월(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환경연합 “공익소송단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실제계획인가를 내며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도민에게 중

요한 생태·휴식 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0월 8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구글 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추석 특별교통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수송 관리를 위해 17일부터 22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추석 연휴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도는 교통항공국을 중심으로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대중교통(버스·택시) 운행 정상 여부 확인 ▷차량 내 유실물 발생 시 운송업체와 연락 후 신속 처리 ▷렌터카 예약업체 확인 후 셔틀버스 탑승장소 안내 등이다.

특히 22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통 분야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하우스, 버스터미널, 주요 정류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송편빚는 아이들 추석前夕 16일 제주시 키즈빌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편을 빚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칼호텔 매각 멈춰야”

(주)한진칼이 제주칼호텔을 매각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칼호텔지부는 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무 건정성만 따

지며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부동산투기형 개발회사에 제주칼호텔 매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영악화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반도덕·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주는 한진칼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호텔노조는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한진칼은 노동자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왔다”며 “동의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호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